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10 15:15 수정 2021.10.10 15:19 호수 1604 댓글 3

모녀·부부 등 색다른 도반들 참여로 천리순례 의미 더해
동화사 회주 의현·주지 능종 스님 등 대중들 순례단 맞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불보종찰 통도사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땀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법사리를 친견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땀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0월10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10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경남 합천 해인사를 출발한 순례단은 22km를 나아가 경북 고령에 도착했다. 총 이동거리는 245km로 회향지 양산 통도사까지는 178km다. 차로 가면 2시간 남짓한 거리지만 순례단은 8일간 걸음걸음만으로 통도사까지 정진한다.

이웃면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철해여! 그대 오늘사 지워지지 않는 41년의 비로소 적조에 쉬게 되 상처...10·27법난 추

날마다좋은날, 세계 각국 불교영화 지역상영...
마곡사, 코로나 극복·국태민안 기원 '군왕대...
용인 구만사, 방생법회 봉행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2021년 학술대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 6기 명상대강좌 수강생...
인천 용궁사, 10년 불사 원만 회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령제 봉행
해남 대흥사, 30회 초의문화제 개최

연재

< >

세심청심

생일과 기일



나의 발심수행

염불수행 전통표(53) - 상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8. 흥천사 무량수전에는 턱...



무진등

구효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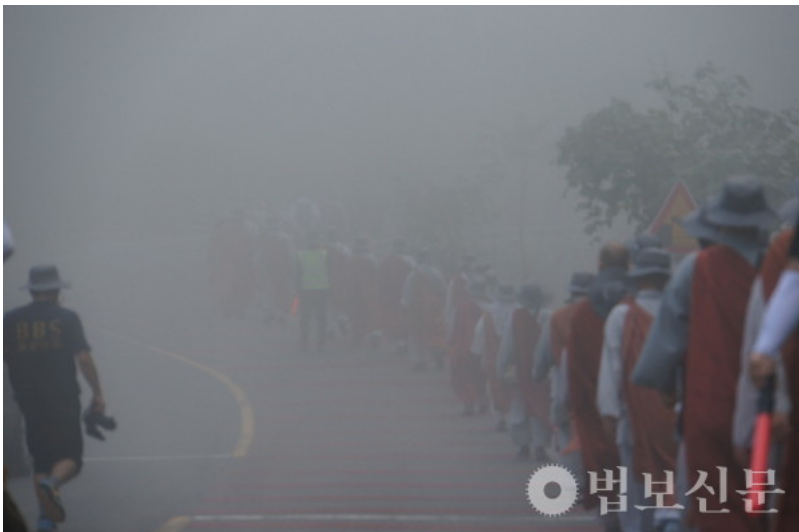
37. 목신들의 계승 판단법





이번 천리순례에는 비구 48명, 비구니 6명, 우바새 14명, 우바이 26명 등 94명이 순례길에 올랐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행선으로 순례를 함께하는 순례단은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도반이다. 이번 순례 도반 중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7조 하정수·박선민 대종은 모녀 참가자다. 엄마 하정수 불자의 권유에 딸 박선민 불자가 주저 없이 앞장섰다. 엄마 하정수 불자는 “지난해 자비순례 기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마침 봉은사 스님들이 천리순례 동참을 제안해 주저 없이 참여를 신청했다”며 “출발 전 공항장에 진단을 받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순례를 하면서 약도 끊을 만큼 크게 좋아졌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01 조계종 비구 66·비구니 16명, 대종사·명사 품서
- 02 “지역사찰 미래, 문화 콘텐츠 개발 여부에 달렸다”
- 03 본사주지 스님들, “불교평화 정착래 의원 제명하라”
- 04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5 기림사 전 주지 철해당 종광 스님 10월24일 원적
- 06 송영길 대표 “전통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타당...민주당 공식입장”
- 07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08 정청래, 이번엔 문화재관람료를 극장 관람료로 억지비유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이어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길이지만 딸이 동행하고 여러 도반들이 함께해 큰 어려움 없이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며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감사함을 느끼며 내년엔 다시 순례길이 열리면 큰딸에게도 함께하자고 권할 것”이라고 말했다.

딸 박선민 불자는 “마침 시간적 여유가 생겨 순례에 동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건강해져 발 걸음이 더욱 가볍다”며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으니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됐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심하며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순례 도반 중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7조 하정수·박선민 대종은 모녀 참가자다. 6조 이세옥·8조 윤재웅 대종은 부부다.

6조 이세옥·8조 윤재웅 대종은 부부다. 이세옥 불자는 “지난해 자비순례에 다녀온 남편이 너무 좋았다고 자주 이야기해 많은 사람이 왜 이 길을 걷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어 따라나섰다”며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함께 회향법회 갖기를 기도한다. 통도사에 도착하면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고 웃음을 보였다.

윤재웅 불자는 “우리는 부부이기 전에 초등학교 동창이고 함께 정진하는 50년지기 도반이다. 천리순례에 함께 나서준 도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천리순례길에는 되도록 생각을 비우고자 한다. 오직 순례에만 집중하며 함께 회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지인 고령 예마을캠핑장에는 동화사 회주 의현, 주지 능종 스님을 비롯해 9교구 사부대중이 순례단을 맞이했다. 의현 스님은 “삼보사찰 자비순례의 공덕으로 국난이 극복되고 불교가 중흥되기를 바라며 경북 고령에 도착한 순례단을 환영한다”며 “순례단이 불편함 없이 경북지역을 순례할 수 있도록 9교구 본말사 사부대중은 정성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고령=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9일차] 화염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8일차] 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계·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에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별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사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 장 열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3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머리 (비회원) | 2021-10-11 17:05:22

삭제

삭발좀해라

답글 작성 3 0



빈손 (비회원) | 2021-10-11 17:01:58

삭제

빈손오지는않았겠지
대중공양비얼마를받쳐올까
그대중공양비는참가비와
기타등등은어디에쓸까
궁금타



드디어 (비회원) | 2021-10-10 17:59:46

[삭제](#)

의현큰스님 감사인사 납시오
이행사의 경비가 아깝다
대중공양 얼마나 받쳐올까
전국선방에다 평소에 갖다 바치고

답글 작성 5 0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02-725-7010 | 팩스: 02-725-7017
법인명: (주)법보신문사 | 제호: 법보신문 | 등록번호: 서울 다 07229 | 등록일: 2005-11-29 | 발행일: 2005-11-29
발행인: 김형규 | 편집인: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